

# 어린이의 거친 신체 놀이와 사회적 능력 연구\*

## Rough-and-Tumble Play and Social Competence in Preschool Children

이 속 재\*\*

Lee, Sook Jae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relations between the rough-and-tumble play of preschoolers and their social competence. The subjects were 61 4-year-olds and 59 5-year-olds. Children were observed on a day care center playground during free play time. Teachers were asked to rate the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incidence of rough-and-tumble play varied according to the sex of the child and the physical environment of the playground. Children's rough-and-tumble play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measures of social competence.

### I. 서 론

거친 신체 놀이(rough-and-tumble play)는 어린이가 몸을 거칠게 움직이면서 친구들과 함께 노는 놀이를 의미한다. 어린이의 거친 신체 놀이를 최초로 연구한 Blurton-Jones(1967)에 의하면 거친 신체 놀이는 7가지 행동, 즉 웃음, 뛰기, 점프하기, 살짝 때리기, 헤슬링, 쫓기, 도망가기 등으로 나타난다. Smith와 Boulton(1990)도 거친 신체 놀이가 싸우는 척하기, 잡기, 둉구르기, 발로 차기, 주먹으로 치기 등의 접촉 행동과 쫓

기, 도망가기 등의 비접촉 행동으로 표현된다고 주장하였다.

거친 신체 놀이는 이러한 행동 특징 때문에 공격적 행동이나 싸움, 전쟁놀이, 운동놀이 등과 유사한 놀이로 잘못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Pellegrini(1987, 1989), Smith와 Boulton, DiPietro(1981), Hughes(1995), Humphreys와 Smith(1987) 등에 의하면 거친 신체 놀이는 공격적 행동이나 싸움과는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구분이 된다. 첫째, 공격적 행동은 놀이 공간이나 놀이감 소유에 대한 경쟁심 때문에 야기되는 경

\* 이 논문은 1997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성신여자대학교 유아 교육과 교수

우가 많으나 거친 신체 놀이에는 이러한 경쟁심이 수반되지 않는다. 둘째, 어린이가 공격적 행동을 할 때는 얼굴을 징그리거나 눈을 흘기는 등의 부정적 정서가 표현되지만 거친 신체 놀이를 할 때는 미소를 짓거나 웃는 등 긍정적 정서가 반영된다. 셋째, 공격적 행동을 할 때 어린이는 있는 힘을 다해서 친구에게 해를 입히려고 행동하지만 거친 신체 놀이를 할 때는 재미로 하기 때문에 힘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다. 넷째, 공격적 행동에서 어린이는 공격을 가하거나 당하는 입장에 있게 되지만 거친 신체 놀이에서는 친구를 추적하거나 도망 다니는 역할을 서로 바꾸어 가면서 한다. 다섯째, 공격적 행동이나 싸움의 결과로 친구들 사이에 심리적, 육체적 거리감이 생기지만 거친 신체 놀이가 끝난 후에는 대부분 우호적인 친구 관계가 유지된다.

한편, 공격적 행동이나 싸움 이외에 거친 신체 놀이와 유사한 놀이로 전쟁 놀이, 영웅 놀이(Superhero play), 운동 놀이(Vigorous activity play)가 지적된다. 전쟁놀이나 영웅 놀이는 상상 놀이의 일종으로 군인이나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을 가작화하는 놀이다. 이러한 놀이 중에 거칠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친 신체 놀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거친 신체 놀이에는 어떤 대상이나 사물에 대한 가작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이 된다. 그 밖에 거친 신체 놀이는 달리기, 미끄럼 타기, 축구 하기 등과 같은 운동 놀이와도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거친 신체 놀이는 친구와 함께 하지만 운동 놀이는 어린이 혼자서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격적 행동을 모방하는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거친 신체 놀이와 다르다. (Hughes, 1995; Humphreys & Smith, 198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친 신체 놀이는 공격적 행동이나 싸움, 전쟁놀이 등과 구별되는

별개의 놀이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놀이에 비해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까지 발표된 선행연구에서는 거친 신체 놀이와 다른 행동을 구분하는 기준이나 거친 신체놀이 양상, 거친 신체 놀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등에 관심이 모아졌다. Costabile, Smith, Matheson, Aston, Hunter와 Boulton(1991)은 8~11세의 영국, 이태리 어린이가 거친 신체 놀이를 얼굴 표정과 웃음 여부, 행동의 강도에 따라 구분 짓고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Smith와 Boulton(1990)의 연구에서도 4세 어린이가 신체 행동의 강도에 따라 싸움 행동과 거친 신체 놀이를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친 신체 놀이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는가에 대해서는 Humphreys와 Smith(1987)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Humphreys와 Smith의 연구결과, 어린이가 처음에 거친 신체 놀이를 하려고 시도할 때 상대방 어린이의 과반수 정도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1/3정도는 거친 신체 행동으로 반응하였다. 또한 놀이 도중에는 쫓고 도망가기, 팔을 휘두르기, 꽉 불잡기 등의 행동을 많이 하였고 거친 신체 놀이가 끝나도 어린이들이 함께 있으면서 상호 작용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친 신체 놀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어린이의 성, 연령 및 놀이 환경 조건 등이 논의되고 있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 거친 신체 놀이의 참여 빈도는 어린이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여서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유아기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구한 Pellegrini(1989), Dipietro(1981)의 연구,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Humphreys와 Smith(1984)의 연구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여러 문화권, 예를 들어 미국(Dipietro, Pellegrini), 영국(Blurton-Jones, 1967), 멕시

코, 필리핀, 오키나와, 인도(Whiting & Edwards, 1973) 어린이를 연구한 결과에서도 남아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거친 신체 놀이 참여 빈도는 어린이의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Humphreys와 Smith(1984, 1987)가 7~9세 어린이의 거친 신체 놀이 참여율을 조사한 결과 7세 어린이 13.3%, 9세 어린이 9%, 11세 어린이는 4.6%로 7세 어린이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Pellegrini(1989)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밖에 거친 신체 놀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한데 Humphreys와 Smith(1987)는 실외 놀이장의 아스팔트 바닥보다 잔디밭에서 거친 신체 놀이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밝혀냈다. 한편 Pellegrini(1989) 연구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의 경우, 놀이 기구 위에서 거친 신체 놀이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친 신체 놀이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는 주로 포유동물의 놀이 연구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 포유동물은 거친 신체 놀이를 함으로써 사회적 웅집력이 촉진되고 협동력이 증진된다(Humphreys & Smith, 1984). 어린이의 경우 도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거친 신체 놀이를 하는 가운데 사회적 능력이 촉진된다고 가정 할 수 있겠다. Kostelink, Whiren, Stein(1986)에 의하면 어린이는 거친 신체 놀이를 통해 자신을 방어하거나 분노를 발산하는 방법을 배우고 갈등 상황에서 타협하는 기술을 익히게 된다. Pellegrini(1988, 1989) 연구에 의하면 인기아와 남아의 거친 신체 놀이는 사회적 능력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Humphreys와 Smith(1984,

1987), Smith와 Boulton(1990)도 거친 신체 놀이가 어린이를 사회적으로 친밀하게 만들어서 친구간의 우정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모두 외국의 유아기 어린이 및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며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없다. 거친 신체 놀이의 특징이 공격적 행동이나 싸움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유아 교육자나 부모로부터 무시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 놀이가 전체 놀이의 10~11%를 차지한다는 학자들의 주장이나(Humphreys & Smith, 1987) 사회적 능력과의 관련에 대한 논쟁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 유아기 어린이를 대상으로 거친 신체 놀이의 양상, 참여 빈도,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에 입각 해서 제기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친 신체 놀이는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는가?

둘째, 거친 신체 놀이의 참여 빈도는 어린이의 성, 연령 및 실외 놀이장 환경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세째, 거친 신체 놀이 참여빈도와 어린이의 사회적 능력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어린이집 4개소에 다니는 만 4, 5세 어린이 120명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 선정되었다.

첫째, 실외 놀이장의 환경 조건이 우수한 어린이집 2개소와 열등한 어린이집 2 개소를 선정하였다. 선정을 위해 Frost(1976)가 제작한 '실외

놀이장 평가 도구(Playground Rating System)'를 신동주(1996)가 번역한 내용을 사용하였다. '실외 놀이장 평가 도구'는 실외 놀이장의 기능, 시설, 설비 실태와 안전도를 측정하는 총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0점~5점 척도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찰 기준이 모호한 기능 관련 문항 10개를 삭제하고 사용하였다. 이 도구를 가지고 중산층 거주 지역의 21개 어린이집 실외 놀이장을 평가하여 총점 100점 이상의 환경 조건이 우수한 어린이집 2개소와 50점 이하인 열등한 어린이집 2개소를 선정하였다. 각 어린이집의 학급은 단일 연령의 어린이 20~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학급별로 실외 놀이를 실시하고 있었다. 학급별로 실외놀이를 실시할 때 어린이 1인당 실외 놀이장 면적은 환경조건이 우수한 어린이집 평균 5.1평, 열등한 어린이집 4.4평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놀이 기구의 종류, 유형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즉 환경 조건이 우수한 어린이집의 실외 놀이장에는 변형 가능한 놀이 기구가 7, 8종류 설치되고 놀잇감이 제공되었으나 열등한 어린이 집에는 고정 놀이 시설물이 3종류 설치되고 놀잇감이 제공되지 않았다.

둘째, 4개 어린이 집에서 만 4, 5세 어린이 총 120명(만 4세 61명, 만 5세 59명: 남 62명, 여 58명)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 2. 연구 절차

### 가. 거친 신체 놀이의 관찰

본 연구에서는 거친 신체 놀이를 2명 이상의 어린이가 재미를 위해서 서로 잡고 뒹구르고 치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동과 쫓고 도망 다니는 비접촉 행동을 하는 놀이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근거로 하여 거친 신체 놀이의 양상과 참여빈도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관찰하였다.

### (1) 거친 신체 놀이 양상 관찰

거친 신체 놀이 양상을 관찰하기 위해 사건 표집법으로 비디오 촬영을 하였으며 비디오에 녹화된 거친 신체 놀이중 총 87사례를 무선 표집하였다. 비디오 촬영은 어린이집 4개소에서 1997년 10월 13일에서 31일 사이에 유아교육 전공 대학 원생 4인이 촬영하였으며 촬영자간 일치도는 .92였다.

총 87사례의 거친 신체 놀이 비디오 테이프를 상세히 관찰하여 놀이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의 행동과 언어를 글로 옮겨 적은 후, 관찰 범주에 따라 발생 빈도를 모두 표시하였다. 관찰 범주는 Smith와 Boulton(1990)의 거친 신체 놀이 관찰 범주, Humphreys와 Smith(1987)의 거친 신체 놀이 시작과 종결 범주를 기초로 본 연구의 예비 관찰을 통해 수정, 보완하였다. 선정된 관찰 범주는 놀이 시작, 놀이 행동, 종결, 놀이 장소, 놀이 집단의 수, 성구성, 놀이 지속 시간 등 7가지로 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거친 신체 놀이 시작 범주는 친구를 때리거나 잡으려 다니는 등의 거친 행동과 친구에게 호의적으로 접근하는 사교적 행동 등 2가지 세부 항목으로 나누었다. 거친 신체 놀이 행동은 도망가기와 잡기, 잡아 나꾸거나 밀치기, 뒤엉켜서 바닥에 구르기, 팔을 휘두르거나 태권도, 권투 흉내내기, 쿡 찌르거나 때리기, 발로 차기, 덤벼들기, 사물을 던지거나 던지는 시늉하기 등 8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하였다. 거친 신체 놀이 종결은 싸움이나 공격 행동으로 전환, 함께 놀던 친구와 극놀이 참여, 함께 놀던 친구와 게임 참여, 함께 놀던 친구와 운동 놀이 참여, 각자 다른 놀이에 참여, 놀이에 참여하지 않음 등 여섯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하였다. 놀이 장소는 놀이기구 위, 부드러운 바닥, 단단한 바닥 등 세 가지 항목으로 세분하였으며 놀이집단의 성구성은 혼성, 동성으로 세분화 하였고 그

밖에 놀이집단의 수, 놀이 지속 시간 등이 기록되었다.

이러한 분석 작업은 본 연구자와 유아교육학자 1인이 담당하였으며 분석자간 일치도는 .95이었다.

### (2) 거친 신체 놀이 참여 빈도 관찰

거친 신체 놀이의 참여 빈도를 관찰하기 위해 시간 표집법으로 놀이 참여 여부를 관찰하였다. 관찰은 어린이집의 실외 자유 놀이 시간에 약 30분 동안 각 어린이를 10초 관찰하고 5초 기록하였으며 어린이당 총 관찰 회수는 50회였다. 관찰은 1997년 10월 13일~31일에 유아교육 전공 대학원생 4명이 하였다. 관찰자는 사전에 2회에 걸쳐서 거친 신체 놀이의 정의, 관찰 및 기록 방법 등에 관하여 훈련을 받았으며 관찰자간 일치도는 .85였다.

#### 나. 사회적 능력 검사

어린이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Kohn의 교사용 사회적 능력 검사(KCSC:Kohn Social Competence Scale)를 우리나라 천희영(1993)이 타당화 검증을 실시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만 3세에서 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과 참여, 사회적 협동의 두 요인에 관련된 총 3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어린이의 담임교사가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 3. 통계 분석

첫째, 거친 신체 놀이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거친 신체 놀이 시작, 놀이 행동, 종결, 놀이 장소, 놀이집단의 성구성 등의 항목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놀이집단의 인원수, 놀이 지속시간은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거친 신체 놀이의 참여 빈도가 어린이의 성, 연령, 어린이집 실외 놀이장의 환경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하였다.

셋째, 어린이의 거친 신체 놀이 참여 빈도와 사회적 능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거친 신체 놀이 양상

거친 신체 놀이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놀이의 시작, 놀이 행동, 종결, 놀이 장소, 놀이집단의 성구성, 인원수, 놀이 지속 시간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친 신체 놀이는 사교적인 행동보다 거친 행동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또한 어린이들은 거친 신체 놀이를 할 때 잡아 나누거나 밀치기(20.55%), 도망가기와 잡기(20.25%), 팔을 휘두르거나 태권도, 권투 흉내내기(17.79%), 쿠 치르거나 때리기(14.72%) 등의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친 신체 놀이의 마무리는 함께 놀던 어린이들이 흩어져서 각자 다른 놀이에 참여하는 경우가 51.71%로 가장 많았고 거친 신체 놀이가 운동 놀이로 전환되는 경우가 17.24%였다. 거친 신체 놀이가 싸움이나 공격적 행동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11.49%였다. 그밖에 거친 신체 놀이가 이루어진 장소를 분석한 결과 놀이 기구 위가 53.4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모래밭과 같은 부드러운 바닥이 39.6%였으며 아스팔트 바닥 등의 단단한 바닥은 6.93%였다. 거친 신체 놀이 집단의 성구성은 동성의 친구로 구성되는 경우가 (60.92%) 혼성으로 구성되는 경우(39.08%)보다 훨씬 더 많았다.

〈표 1〉 거친 신체 놀이 양상의 관찰 항목별 통계치

관찰 범주 및 항목	N	%
거친 신체 놀이 시작 (N=87)		
거친 행동	57	65.52
사교적 행동	30	34.48
거친 신체 놀이 행동 (N=326)		
잡아 나누거나 밀치기	67	20.55
도망가기와 잡기	66	20.25
팔을 휘두르거나 태권도, 권투 흉내내기	58	17.79
쿡 찌르거나 때리기	48	14.72
뒤엉켜서 바닥에 구르기	26	7.98
발로 차기	26	7.98
덤벼들기	24	7.36
사물을 던지거나 던지는 시늉하기	11	3.37
거친 신체 놀이 종결 (N=87)		
각자 다른 놀이에 참여	45	51.72
함께 놀던 친구와 운동 놀이 참여	15	17.24
싸움이나 공격 행동으로 전환	10	11.49
함께 놀던 친구와 극놀이 참여	8	9.20
놀이에 참여하지 않음	5	5.74
함께 놀던 친구와 게임 참여	4	4.60
거친 신체 놀이 장소 (N=101)		
놀이 기구 위	54	53.47
부드러운 바닥	40	39.60
단단한 바닥	7	6.93
거친 신체 놀이 집단의 성구성 (N=87)		
동성 집단	53	60.92
혼성 집단	34	39.08
관찰 범주	M	SD
거친 신체 놀이 인원수 (N=87)	3.86	1.75
거친 신체 놀이 지속 시간 (분:초) (N=87)	2:23	2:25

한편 거친 신체 놀이 집단의 평균 인원수는 3.86명이었고 평균 놀이 지속시간은 2분23초 였다.

## 2. 거친 신체 놀이 참여 빈도

연구 대상 어린이 120명을 50회씩 관찰한 결과, 총 관찰 횟수의 약 6.8%가 거친 신체 놀이로 밝혀졌다. 어린이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4세 어린이 놀이의 7.0%, 만 5세 어린이 놀이의 6.6%가 거친 신체 놀이였다.

거친 신체 놀이 참여 빈도가 어린이의 성, 연령, 실외 놀이장 환경 조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

다.

〈표 2〉에 의하면 거친 신체 놀이 참여 빈도는 어린이의 성과 실외 놀이장 환경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아는 여아보다 거친 신체 놀이를 많이 했으며 실외 놀이장의 환경 조건이 열등한 어린이집 어린이가 우수한 어린이집 어린이보다 거친 신체 놀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린이의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 어린이의 성, 연령, 실외 놀이장 환경에 따른 거친 신체 놀이 참여 빈도

변 인	M	SD	t
성	남아 (N=62)	4.63	4.09***
	여아 (N=58)	2.12	
연령	4세 (N=61)	3.51	.28
	5세 (N=59)	3.32	
실외 놀이장 환경	우승 (N=60)	2.22	3.89***
	열등 (N=60)	4.62	

\*\*\* $p<.001$ .

## 3. 거친 신체 놀이 참여 빈도와 사회적 능력의 관계

거친 신체 놀이의 참여 빈도와 사회적 능력 사이의 상관 관계를 알아본 결과, 낮은 부적 상관( $r = -.08, p > .05$ )을 보였다. 또한 사회적 능력의 하위 영역인 사회적 관심( $r = -.03, p > .05$ ), 사회적 협동( $r = -.13, p > .05$ )과도 낮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밖에 성별에 따라 상관 관계를 산출한 결과 남아, 여아간에 약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남아의 경우 사회적 능력은 낮은 부적 상관( $r = -.14, p > .05$ )를 보였으며 하위 영역인 사회적 관심도 낮은 부적 상관( $r = -.19, p > .05$ )을 보였으

나, 사회적 협동은 낮은 정적 상관( $r = .02, p > .05$ )을 나타냈다. 한편 여아는 사회적 능력에서 낮은 정적 상관( $r = .05, p > .05$ )을 나타냈으며 하위 영역인 사회적 관심에서도 낮은 정적 상관( $r = .15, p > .05$ )을 보였으나 사회적 협동에서는 낮은 부적 상관( $r = -.25, p > .05$ )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어린이의 거친 신체놀이 참여 빈도와 사회적 능력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다고 하겠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4, 5세 어린이의 거친 신체 놀이

를 관찰하여 놀이 양상과 참여 빈도를 밝혀 내고 거친 신체 놀이와 어린이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주요결과를 요약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친 신체 놀이를 비디오 촬영하여 시작에서 종결까지 전과정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대상 어린이들은 거친 신체 놀이를 할 때 처음부터 거칠게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들은 거친 신체 놀이를 하면서 잡아 나꾸거나 밀치기, 도망가기와 잡기, 팔을 휘두르거나 태권도·권투 흉내내기, 콕 찌르거나 때리기 등과 같이 다양한 접촉, 비접촉 행동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밖에 거친 신체 놀이의 종결 상황을 관찰한 결과, 어린이들은 거친 신체 놀이가 끝나면 함께 놀던 친구와 홀어져서 각자 다른 놀이에 참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함께 놀던 친구와 운동 놀이, 국 놀이, 게임 등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mphreys와 Smith(1987)의 연구에서는 거친 신체 놀이가 끝나도 함께 놀던 어린이들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또한 거친 신체 놀이가 공격 행동이나 싸움으로 전환된 경우는 11.49%로 나타났는데 이런 결과는 거친 신체 놀이를 싸움 등의 반 사회적 행동과 유사한 행동으로 간주해서 안된다는 학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둘째, 만 4, 5세 어린이의 실외 자유 놀이를 관찰한 결과 6.8%가 거친 신체 놀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전 어린이의 자유 놀이 시간의 5% 정도가 거친 신체 놀이라는 Pellegrini(1989)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높은 비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거친 신체 놀이의 참여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의 성과 실외

놀이장 환경 조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선행 연구(Blurton-Jones, 1967; Dipietro, 1981; Humphreys & Smith, 1984; Pellegrini, 1989; Whiting & Edwards, 1973)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유아기 어린이들도 여아보다는 남아가 거친 신체 놀이를 더 많이 하였다. 이러한 성별 차이에 대해 Pellegrini(1987)는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 보다 인간을 활동적으로 만들어서 남아가 여아보다 거친 신체 놀이를 많이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성 호르몬 이외에 부모나 주변의 성인들이 여아보다는 남아의 거친 활동을 격려하기 때문인 것으로도 유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어린이의 성별 이외에 실외 놀이장의 환경 조건에 따라 거친 신체 놀이 참여빈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환경 조건이 열등한 어린이 집에서 거친 신체 놀이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외 놀이장의 환경 조건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놀이 시설물의 종류가 빈약하고 변형이 불가능하며 설비실태가 불량하여 어린이들이 놀이 기구나 시설물을 활용한 놀이보다 신체를 많이 움직이며 노는 거친 신체 놀이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실외 놀이장의 시설, 설비 실태와 안전도를 근거로 환경 조건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는데 앞으로 좀 더 총체적인 환경의 영향력을, 예를 들어 실외 놀이장의 면적, 공간 구성, 빈 공간 등의 영향력을 밝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 결과 어린이가 거친 신체 놀이에 참여하는 빈도와 사회적 능력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결과는 거친 신체 놀이와 사회적 능력간에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밝힌 Pellegrini(1988, 1989)의 연구 결과와 부

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두 연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원인은 첫째로 연구 대상의 차이로 설명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대상은 만 4, 5세 유아기 어린이인 반면에 Pellegrini의 연구에서는 학령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였을 뿐 아니라 인기 아와 비인기아를 선별하여 조사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연령, 사회적 지위, 성별 등을 고려한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능력을 어린이가 친구들과 우호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아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으나 Pellegrini는 사회적 능력을 사회적 문제 해결력으로 측정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측정 도구를 사용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거친 신체 놀이를 실외 놀이장에서만 관찰함으로써 실내 놀이실에서 일어나는 거친 신체 놀이가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능력 검사는 교사가 평정하는 검사 도구로 객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밖에 거친 신체 놀이의 양상을 관찰 항목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만을 산출하여 양적 분석에 그친 점이 아쉽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유아기 어린이의 거친 신체 놀이의 양상, 참여 빈도,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밝혀 냄으로써 거친 신체 놀이의 특징 및 기능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 참 고 문 헌

이숙재(1997), 유아기 어린이의 거친 신체놀이,

- '97 서울 성북 유아 교육 연구회 워크샵 자료집, 서울시 성북 교육청. pp. 3-11
- 이숙재(1997), 유아를 위한 놀이의 이론과 실제. 창지사.
- 신동주(1996), 유치원 실외놀이 환경의 질에 관한 연구: 서울시 사립 유치원을 중심으로, 한국 영유아 보육학회지 8, 53-70.
- 천희영(1993), 아동 기질과 사회적 능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 아동연구 2, 19-30.
- Almqvist, B. (1994). *Approaching the culture of toys in Swedish child care*, Norstedts Tryckeri; AB, Stockholm.
- Blurton, J. N. (1976), Rough-and tumble play among nursery school children. In J. Bruner, A. Jolly & K. Sylva (Eds.) *Play: Its role in development and evolution*(pp. 352-363), New York:Basic Books.
- Boyd, B. J. (1997), Teacher response to superhero play: To ban or not to ban? *Childhood Education*, 74(1). 23-28.
- Coie, J. D & Kupersmidt(1983). A behavioral analysis of emerging social status in boy's groups. *Child Development*, 54, 1400-1416.
- Costabile, A., Smith, P. K., Matheson, L., Aston, J., Hunter, T., & Boulton, M. (1991), Cross-national comparison of how children distinguish serious and playful figh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7(5), 881-887
- DiPietro, J. A. (1981), Rough and tumble play:A function of gender, *Developmental Psychology*, 17(1), 50-58.
- Gronlund, G. (1992), Copying with Ninja

- Turtle play in my kinder-garten classroom, *Young Children*, 48(1), 21-25.
- Hughes, F. P. (1992), *Children, play & development*, Boston:Allyn and Bacon.
- Humphrey, A. P. & Smith, P. K. (1984), Rough-and-tumble in preschool and playground, In P. K. Smith(Ed.). *Play in and humans*, (pp.241-266), London:Basil Blackwell.
- Humphrey, A. P. & Smith, P. K. (1987), Rough and tumble, friendship, and dominance in schoolchildren:Evidence for continuity and change with age. *Child Development*, 58, 201-212.
- Johnson, J. E., Christie, J. F., & Yawkey, T. D. (1987), *Play and early early childhood development*, Glenview,Illinois:Harper Collins Publishers.
- Kostelnik, M. J., Whiren, A. P. & Stein, L. C. (1986). Living with He-men; Managing superhero fantasy play, *Young Children*, 41(4). 3-9.
- Pellegrini, A. D. (1988), Elementary-school children's rough-and-tumble play and social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4(6), 802-806.
- Pellegrini, A. D. (1987), Rough-and-tumble play, development and educational significance, *Educational Psychologist*, 22(1), 23-43
- Pellegrini, A. D. (1989), Elementary school children's rough-and-tumble play,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4, 245-260.
- Smith P. K., & Boulton, M. (1990), Rough-and-tumble play, aggression and dominance:Perception and behavior in children's encounters, *Human Development*, 33, 271-282.
- Smith P. K. (1994), The War play debate, In J. H. Goldstein(Ed.) *Toys, play, and child development*(pp. 67-84), New York:Cambridge University Press.
- Whiting, B., & Edwards, C. P. (1973), A cross-cultural analysis of sex-differences in the behavior of children aged three through eleve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91. 171-178.